

과 四十cm 임에서 身部가 특히 細長하였음을 짐작 할 수가 있다. 一石에서 이만한 身軀의 比率을 보이면 安定되고 멋진 로즈를 잡기란 容易한 일이 아니다. 前面의 裝飾手法가 더부러 이石像이 非凡한 作家에 의한 會心の 傑作임을 알 수 있다.

(三)

이 石像은 現高一·六m에 達한다. 그리하여 慶州、松花山寺址原在의 半跏石像(慶博所藏)의 高一·二五m에 比하여 더크다 하였는데 後者는 兩肩까지 남아 있는 點에서 볼 때 이 新像의 復元値는 約二·五m 內外에 達하였을 것이다. 그리하여 크기에서 現存하는 半跏石像中 最大의 것이라 하겠는데 이같은 巨大圓彫石像으로서는 印度 中國 또는 日本 등 信佛諸國에서 比肩할 現存作品을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石像은 法堂內에 奉安되어 있었을 것이다. 地表調査에서 보더라도 民墓(北)周邊에 礎石形石材가 一個 東西로 남아 있으며 一帶에 上代의 平瓦片이 無數히 散亂하고 있음에서 틀림없다. 뿐만 아니라 이 石像의 安置臺石 및 그方式도 究明되어야 할 것인바 이 石像背面中央下部와 底面左右에 凸形 또는 方形의 牙는 구멍이 파져 있음은 이와 關聯되어 注目할만하다. 동시에 이 石像의 上半身、頭光、垂下된 足部등도 이 附近이 發掘되어서 存否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以上 諸點에 대한 解明은 將次的 課題라 하겠으나 끝으로 말하려 함은 이같은 半跏石像이 이 地區에서 發見된 여러가지 理由를 더듬어야 할 것이다. 筆者는 오랫동안 上記한 우리나라 國寶 兩像의 原在處를 더듬는 길에서 榮州地區를 가장 注目하여 왔다. 특히 國博像은 安東發見이라 傳하여 왔으나 筆者가 數年前 日本에서 淺川伯教氏에게 問議하였을 때 그는 榮州 輿地라고 傳聞하고 있다는 말을 하였다. 事實 太白山下의 榮州 奉化地區는 그以南의 安東地域과 더부러 古新羅에 있어 國都以北의 佛敎文化의 큰 中心地를 이루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중 특히 榮州一帶는 竹嶺을 두고 高句麗와도 接하여 왔던 곳으로서 일찍부터 佛敎文物이 이곳에 定着하였다고 짐작된다. 그것은 마치 百濟에 있어서 國都 西北方인 瑞山地區가 意外로 佛敎文化의 先驅의 一中心地인 것처럼 古代 石像의 檢出로서 밝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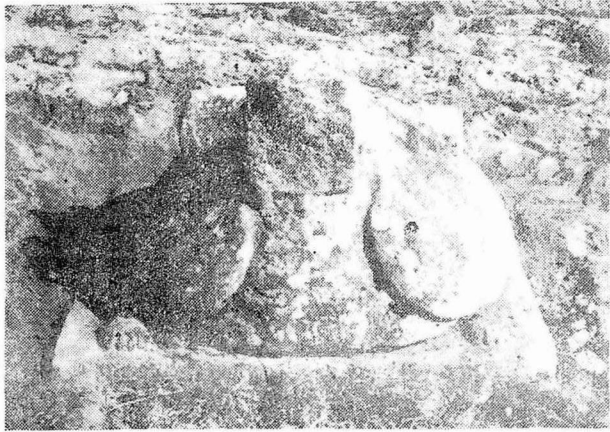
事實과도 對比될 것이다. 이와같이 北方으로부터 傳達된 佛敎가 峻嶺을 넘어 新羅國土로 傳輸될 때 國都에 앞서 地方 몇곳에 根據點을 形成하였을 것은 또한 상정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하여 洛東江 流域의 尙州 善山等地와 上記 몇곳을 指摘할 수 있을 것인바 이것은 비단 新羅佛敎 文化史를 傳하는 文獻에서뿐 아니라 古代 物質的 造形의 傳來地點에서도 그러하다. 그리하여 韓國最大의 奉化 半跏石像의 考察에 있어서는 그 歷史的 地域的 背景에서의 注目도 아울러 있어야 될 것이다(慶州나 安東에서 太白山 浮石寺에 이르는 古代의 交通路는 이 石像所在地를 通過하고 있다(우리나라 三國期 半跏思惟形式像의 非常한 發達과 그 相互 및 外國과의 系譜編年에 있어서 이 石像의 樣式 및 年代가 辛중이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筆者는 西紀 七世紀의 作으로 推定하면서 동시에 그 尊名(註)推定 및 今後의 發掘을 期待하려 하는 바이다(十二月十六日)

(註) 이 地方 一古老는 이 石物을 가르켜 묵은 「彌勒」이라고 말하였다 한다.

奉化太子寺址 調査概要

秦 弘 燮

奉化郡 北枝里에서 調査를 마친 一行은 太子寺址를 찾기로 方針을 定했다. 太子寺에 着眼하게 된 것은 金生集字碑로 이름난 朗空大師白月栖雲塔碑가 一九一八年 當時의 總督府博物館으로 碑身만 移置된 채 龜趺와 螭首는 現地에 放置되었으리라는 推測으로 寺址를 비롯하여 龜趺와 螭首를 確認해야 할 必要를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寺址는 奉化郡內에 있으리라는 짐작뿐이지 確實한 地點을 알지 못하였던 것이다. 마침 본 調査團에 參加하였던 安東郡教育廳 安承一氏의 敎示를 따라 安東郡 陶山面에 있는 太子洞을 指目하게 되었다. 太子洞은 陶山書院으로 通하는 大路에서 陝路로 들어 約三十里 地境을 지나 山麓에 位置한 조그마한



洞里이다. 現在는 洞里 背後의 山 稜線이 奉化郡과 安東郡의 郡界를 現 奉化郡 明湖面과 隣接해 있으나 이 碑를 移置할 때만 하여도 行政區域이 奉化郡 明湖面註)으로 되어있던 모양이며 그當時의 兩郡 郡界는 現 安東郡 地境洞附近이 아니었던가 짐작되어 現 安東郡 太子洞이야 말로 舊 奉化郡 太子洞이고 이곳에 即 太子寺址가 있으리라고 推測하였다. 一行은 安東를 經由 太子洞에 到着하였을 때는 朔風이 물아치는 酷寒 이었다. 兪宗에 石築이 눈에 띄었고 이어 龜趺와 螭首를 찾을 수 있었다. 따라서 이곳을 「奉化太子寺址」로 認定하였으며 殘存遺蹟에 對한 調査를 進行하였다.

石築은 南向하였으며 高約二·五m 長約六〇m의 얇은 一段이며 큼직큼직한 野石을 使用하고 있었다. 이 石壇 위에는 亭子가 한 채 드러 섰고 礎石이 二、三個 散在해 있으나 그 中에는 原位置를 떠난 것이 있어 建物の 規模를 짐작하기 는 힘들었다. 그러나 아마도 이곳이 寺域의 中心이었. 리 라는 點은 곧 짐작이 되었다. 이곳에서 東으로 約一〇〇m 地點에 龜趺 一基가 발가운 데 遺存하며 여기서 다시 東南方 約一〇m 地點에 螭首 가 눈두렁 밑으로 轉倒되어 있었다. 龜趺는 方形地臺石 에 거북의 四足を 彫刻하고 그 위에 別石으로 身部를 올려 놓았다. 地臺石은 一六八×一五五cm 高 一八cm이며 前面 兩足 사이는 一二·六cm 이다. 龜身은 頭部의 前半이 缺失되었고 龜甲內에는 「王」

字가 陽刻되었으나 磨滅이 甚하며 碑座의 後半도 缺落되었다. 身高九六cm 碑座까지의 高六三cm 身幅九六cm 身長約一六〇cm이며 碑座는 八×一八cm 深一四이다. 大體로 小規模일뿐 아니라 彫刻도 纖弱하며 全體의 縮小된 作品이었다. 이에 對하여 螭首는 地中에 埋沒되었던 關係로 彫鏤가 比較的 잘 남아 있었다. 高五二cm 底面 一二四×四六cm로 頂部 中央에 徑四cm 深五cm의 小孔이 있다. 前面 中央에 一九×一六cm의 額이 있으나 刻字한 痕蹟이 없으며 그 左右로 頭部를 強調하면서 雙龍을 彫刻하였고 題額 上部에 큼직한 寶珠形을 두고 있다. 背面 亦 同形이고 左右에는 龍身과 中央 上部에 前面과 同形인 寶珠形이 있다. 底面에는 八四×一四cm 深一二cm의 長方形 孔이 있어 碑身을 받쳐 手法等으로 보아 前記 龜에 屬해 있었던 것으로 推測되었다.

이 龜趺와 螭首를 發見하였을 때 곧 碑身만 移置하고 放置해 둔 朗空 大師碑에 屬했던 龜趺와 螭首로 認定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現在 景福宮 勤政殿 迴廊에 세워져 있는 同 碑身을 調査한 結果이 兩者는 別途의 것이라는 疑心을 품게 되었다.

첫째 彫刻手法에 있어서이다. 朗空大師碑의 立碑가 高麗 光宗 五年(九五四)이므로 同年代인 光宗 元年(九五〇)에 建立된 大安寺 廣慈大師碑나 光宗十六年(九六五)에 建立한 鳳岩寺 靜眞大師 圓悟塔의 龜趺나 螭首에 比하여 一部 樣式的으로 同一한 點도 있으나 너무나 拙作이라는 點이다.

둘째로 크기에 있어서이다. 景福宮의 朗空大師碑는 새로 碑座를 만들고 그 위에 세웠음으로 碑 下部의 狀態는 不明이지만 碑 頂部에는 螭首 에 끼도록 축이 나와 있다. 이 축과 太子洞에 遺存한 螭首의 長方形 孔 과를 比較하면 다음과 같다.

螭首	碑	cm
長	九二·五	長
幅	一八	幅
深	八·四	深
螭首	八四·〇	
	一四	
	一二	

이것을 보면 螭首에 碑가 드러 맞지 않게 된다.
以上과 같은 理由로 太子洞이 太子寺址로 推定은 되나 이 龜趺와 螭首가 即 朗空大師碑에 屬했던 것이라 는 點에 對하여는 十分의 疑心을 품게 되었다. 同寺址에는 此外에 다른 遺物이 눈에 띄지 않아 附近을 다시 精査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襄陽出土青銅製菩薩坐像

鄭 永 鎬

지난十一月二八日午後三時頃 江原道襄陽郡襄陽 面連昌里 山麓에서 高柱學氏(四五歲) 外 四名의 古鐵蒐集者 一行에(註1) 依하여 古鐵探知機로 探索中 出土되어 다음날인 二九日 午前 同郡 敎育廳에 申告된바 그 후 곧 收拾되었는데 筆者가 이곳을 訪問時(十二月 八日) 現品을 調査할 수 있었다.

前記한 出土地點과 그 넘어 一帶를 俗稱「佛堂골」이라 하는데 洞民들



의 말에 依하면 本來 이곳에는 큰 石佛이 있었다고 한다. 佛像은 總高 二六·五cm의 青銅製菩薩로서 蓮華臺座上에 結跏趺坐하였다. 臺座는 異例的인 三角形으로서 各角(角)를 둥글게 하였으며 中臺는 없고 下端部에는 一段의 굽돌리를 細彫한 위 上 下臺에 相對的으로 單葉 十三瓣의 仰伏蓮을 陽鑄하였다. 蓮瓣內는 모두 瓣端便에 귀꽃모양의 裝飾이 있는데 上 下臺의 蓮瓣은 前面과 左右面만으로서 後便(三角臺座의 隅지點)에 이르면 無紋이다 相好는 圓滿하며 口唇과 양눈에는 若干의 微笑가 어리었다. 白毫는 없고 三道가 돌렸으며 兩眉眼이 또렷한데 鼻樑에 若干의 磨痕이 있음은 遺憾된 일이다 寶冠에는 全面에 瓔珞을 滿鑲하여 한편 걸게는 리워진 兩耳의 귀거리와 잘 어울리어 더한층 華麗한 印象을 준다. 通肩으로서 衣文은 양쪽 무릎과 앞자락에 까지 流麗하며 목걸이와 全身에 휘감은 瓔珞은 胸前과 臍前에서 結束되어 左右로 느리워져 마치 帳幕의 玉鏤와도 같은 느낌을 준다. 兩腕에는 腕釧에 連하여 立狀 蓮葉과 연봉의 彫飾이 있는데 그 以下部가 缺失되어 手印을 알 수가 없다. 胴體에서 흐른 衣文은 양무릎으로부터 두자락식 길게 느리워져 左右對稱으로 下臺에 까지 흘렀고 後部에는 結束된 三條의 連珠文帶가 上臺面까지 내려졌다. 背面에 있어서 頭部는 寶髮의 結束部分 바로 밑에 귀꽃紋(鬘形紋樣)이 있고 兩肩에 걸치는 間地에는(목도리式文帶) 唐草文이 線刻되어 있어 注目되었다. 底部는 內空이며 全面에 靑綠鏤가 덮혔으나 兩腕의 缺損外 臺座等 各部分이 完全한데 下底部와 곳곳에 木炭片이 附着되어 있으므로 보아 人爲的인 埋藏品이 아니었는가? 짐작된다.

上下對稱的인 橢圓形의 臺座와 坐像이 一石으로서 造成된 類例는 堤川郡月岳山 德周寺址의 石製小像(註2)에서 볼 수 있는바인데 이러한 變形의 臺座樣式은 羅代의 八角圓形 및 方形等의 通式으로부터 時代가 降下되는 바로 짐작된다. 이 菩薩像은 寶冠이나 相好等 各部의 手法으로 보아 麗初의 優作으로 推定된다.

實測値는 cm……坐像高 二〇·二 肩幅 七·五 膝高 二·二
臺座高 六·三 胸幅 四·五 膝幅 十二·二 이다.

註1, 襄陽面南門里 襄陽古物商에서 이난선 김삼도 최창선 김도한等 四名과 同業하고 있음